

아시아 사회문제 현대미술과 접목

마닛 스리와니취품 '핑크맨 오페라' ▶

저스틴 림 '아무도 있지 못할 의자들' ▶

▶ 전북도립미술관 '아시아현대미술전' 소장작 소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아시아 현대미술전'과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수집된 소장 작품을 소개한다.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전북도립미술관 아시아 컬렉션'전은 미술관 소장품 전시 중,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만으로 구성된 최초의 전시이다.

이번 소장품전은 전북 미술을 한국·아시아현대미술의 흐름에 동참시키고, 그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작가 마닛 스리와니취품은 현대사회의 소비지상주의 풍조에 대한 비판과 태국 상류층 사람들의 품위 없고 천박한 단면을 폭로하는 '핑크맨' 시리즈를 선보인다.

중국에서 활동 하고 있는 우카오중은 작품 '검은 진흙 소총'에서 일상의 오브제에 동물을 연상시키는 털을 심어서 애니메이션과 현대성을 결합하고자 했다.

마닛 스리와니취품 '핑크맨' 태국 상류층의 천박함 폭로

저스틴 림 '아무도...' 등 30여 점의 작품 전시

만물이 영혼·에너지·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작가 장석원은 '상대적 구조에서 자연의 강렬한 에너지를 인간과 결합시키고 모든 생명현상이 그 에너지의 끝없는 윤회와 관련이 있음을 퍼포먼스로 표현한다.

대만의 야오루이중은 현대인이 내면의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의존하게 되는 특정 대상인 우상과 신성한 존재인 신의 경계에 대해 질문하는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과 내재된 욕망을 보여주는 작품 '알 수 없는 흔적Ⅳ-신과 우상의 경계'를 기증하



였다. 이외에도 종이로 접어 마치 고급 도자기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관천후의 사진작 '청결레전6-육수주전자'를 비롯해 면도날을 전통적 형태의 의자에 박아서 그린 저스틴 림의 '아무도 있지 못할 의자들', 파르자나 아베드의 회화 '알려진, 알려지지 않은' 회화 등 3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미술관 측은 "아시아 작가 소장품 수집으로 도립미술관은 미술사적으로, 조형적으로 가치 있는 훌륭한 작품들을 다수 확보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미술관은 아시아 국가들과 우리의 사회상 및 현대미술의 경향을 비교하여 사유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아시아 현대미술 흐름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급변하는 시대 대응법 분석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내일
'제4차 산업혁명이 온다' 특강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신수미 센터장)는 한일특허법률사무소의 박중환 변호사를 초청해 '제4차 산업혁명이 온다'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18일 오전 11시 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급변하는 시대에 대·내외 변화의 흐름을 읽고 대응법을 분석하며 경쟁력 확보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고자 기획됐다.

센터는 이번 특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현황, 일자리 지형변화, 주목받는 지식정보통신분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 일컬으며 ICT융합기술, 사물인터넷 등을 중요한 분야로 지목했다.

특히 미래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향하는 지름길인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인재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16년부터 'SW여성인재 수급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인재의 SW분야 유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센터도 일반교육 과정에 데이터 경제시대 핵심 기술인 코딩교육, 3D 프린팅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여성들의 ICT/SW 분야 사회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신수미 센터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뛰어난 소통 능력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닌 여성들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진출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 개척을 통한 도민 역량개발 지원으로 전북도 미래 성장동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63-254-3813.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부안예술회관, 설 맞아 27일 '동춘서커스' 공연

부안예술회관이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특별 기획공연을 펼친다.

오는 27일 오후 3시와 7시 30분에는 동춘서커스 공연이 펼쳐지며 29일 오후 3시와 7시 30분에는 영화 '럭키'가 상영된다.

설 명절 특별기획공연은 부안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사업으로 동춘서커스단은 90년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내 유일의 서커스 공연단으로서 마술, 무용, 음악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한시도 관객의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커스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공연은 부안예술회관에서 2017년에 열리는 첫 번째 공연으로서 설 명절 동안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마음 편히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코자 기획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서커스단의 화려한 묘기와 곡예 등을 감상하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시각적 경험은 물론 아슬아슬한 스릴감도 안겨드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영화배우 유해진 주연의 반전코미디 영화 '럭키'도 준비했다. 두 공연 모두 관람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해 부안예술회관이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며 "공연티켓을 현장에서 예매한 뒤 공연 당일엔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는 획기적으로 공연예매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온라인으로 더욱 손쉽게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만큼 많은 사랑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누구나 여기서 예술활동 할 수 있어요"

김제생활문화센터 이용대상자 모집
개인·동아리 대상 매월 25일까지

김제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자 문화의 중심이 될 김제생활문화센터가 이용대상을 모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6일 개관한 김제생활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내부에는 어울림카페, 연습실 및 학습실(소리랑두드림, 춤이랑 노래, 꾸민방, 모뎀방, 개인연습실), 네트워킹실, 전시관 등이 갖추어져 매주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시관을 제외한 전체 공간이 무료로 개방되어 각 공간별로 신청 접수 순

서에 따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김제지역에 주소지를 둔 개인 및 동아리(단체나 5인 이상 그룹)를 대상으로 매월 25일까지 모집하며 1일 3시간 이내, 주 7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문화홍보추진실(생활문화센터)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김제생활문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해 해 삶의 가치와 재미를 발견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다양한 관계 구축을 통해 생활문화 확산의 거점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독립영화협회, 오늘부터 3일간 '작은 영화제' 상영전

(사)전북독립영화협회와 전북대 인문역량강화사업추진단은 공동으로 '작은 영화제, 사랑과 욕망의 방정식' 상영전을 17일~19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상영전은 전북대학교 인문대 학생들이 대상으로 진행된 인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영화비평교실'에 이은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이들 작품 이외에도 우디 알렌 <애니 홀>,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사랑을 카피하다> 등의 작품 상영과 함께 상영 전 수강생들의 짧은 영화 해설 강연이 곁들여진다. 상영전은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열린다.

**문의 063-282-3176.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17일>



▷쥐띠

48년생: 컨디션 조절에 신경써야 하는 운이다.
60년생: 불발 일이 생기는 운이니 매사에 조심스러운 자세가 필요하다.
72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84년생: 동기들과 함께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소띠

49년생: 융통성 있는 판단이 필요할 때.
61년생: 금전운은 좋으나 타인과의 관계에는 냉랭이 따른다.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언행에 주의하라.
85년생: 자신보다 능력있는 사람의 조건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호랑이띠

50년생: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협동해야 가능하니 먼저 손을 내밀어라.
62년생: 동기들끼리 이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이다.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향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86년생: 방심은 금물. 숨은 폭병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썩인다.



▷토끼띠

51년생: 과한 것은 모자르지만 못한 법.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꾼이 나타나 고민할 일이 생긴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님은 이럴때 쓰는 말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니 투기는 금물이다.
87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답을 쉽게 찾는다.



▷용띠

52년생: 힘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인연을 소중히 대하라.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자부심을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상대도 나와 같이 자중하라.
88년생: 먼저 얻으면 나중에 잃게 되는 운이니 지나친 욕심은 삼가라.



▷말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하는 운.
77년생: 약속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검토는 필수.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한다.



▷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 나서지 말아야 한다.
66년생: 올라오는 회기를 가리안하라. 상황만 악화된다.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무리한 지출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작은 것은 가능하나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



▷원숭이띠

55년생: 문서에 걸힘이 비추니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도 좋은 운이다.
67년생: 편안함에서 권태를 느끼기 쉬운 운.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쁜 일이 생긴다.
91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양띠

56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다.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68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소화가 계통이 약해지는 운.



▷띠

57년생: 타인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긴다.
69년생: 자신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으니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구분하라.
81년생: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가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이다.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



▷돼지띠

46년생: 타인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58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익이 있는 운.
70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으니 때를 잘 맞춰 움직여라.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게 할 때.



▷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때가 아니니 세심한 일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5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